



◆ IMF와 세계은행, 가나에 37억 달러 규모의 채무탕감 결정

IMF와 세계은행 산하 국제개발협회(IDA)는 고채무빈국 채무탕감 정책(High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에 따라 가나 정부에 37억 달러 규모의 채무탕감안을 승인하였다. 가나 정부는 최근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과다한 국가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IMF와 세계은행에 채무탕감을 요청한 바 있다.

가나의 2001년 말 현재 총 공적대외채무는 약 7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중 절반이 넘는 채무를 HIPC Initiative에 의해 외국 채권단으로부터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신 가나 정부는 제반 경제정책 수립·시행시 IMF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외채상환에 사용하던 자금을 빈곤퇴치를 비롯한 교육 및 보건 환경 개선, 인프라 건설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향후 빈곤퇴

치 노력과 경제개혁, 정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탕감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다.

IMF와 세계은행은 채무탕감 지원을 즉시 개시하기로 결정했는데, IDA는 향후 20년간 만기도래하는 대출 원리금의 67%에 해당하는 7억 8,100만 달러를, IMF는 향후 8년간 만기도래하는 원리금의 49%에 해당하는 1억 1,200만 달러를 각각 탕감해 주기로 하였다.

가나의 2001년 1인당 GDP는 300달러 정도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1990년대 이래 가나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문제는 여전히 구조적인 사회문제로 남아 있다.

HIPC Initiative는 고채무빈국에서의 채무탕감을 목적으로 1996년 세계은행과 IMF에 의해 최초로 시작되었다.

【黃 秀 泳】